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고재홍** · 윤경란***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5가지 생활스트레스 원 중 어떤 것이 자살생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아탄력성이 5가지 스트레스 원 중 어떤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에 완충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의 중고 남녀 학생 총 81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첫째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자기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가족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교우관계스트레스 순서이었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은 개인적 스트레스(학교생활, 자기문제, 환경문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대인적 스트레스(교우관계 문제, 가족구성원과의 문제)로 인한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는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스트레스, 자살생각, 자아탄력성, 조절변인

* 본 논문은 2007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kopsy@kyungnam.ac.kr)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I. 서 론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2006)가 초등학교 5-6학년 735명, 중학생 827명, 고등학생 7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1.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박경애 외, 1993)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은 남학생 88%, 여학생 98%가 한 번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심미영, 김교현, 2005; 이경진, 조성호, 2004;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Hendin, 1987; Wilson, Stelzer, Bergman, Kral, Inayatullah, & Elliot, 1995). 즉, 일상생활스트레스 사건이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De Wilde et al., 1992)이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살률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배, 신민섭, 1991; Hendin, 1987; Mazza & Reynolds, 1998).

실제로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예: Kessler, Price, & Wortman, 1985; Kobasa, Maddi, & Kahn, 1982)은 스트레스 자체와 적응 간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으며, 개인의 적응력은 스트레스 이외에도 사회적 환경요인이나 개인의 성격특성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Billings & Moos, 1981). 예를 들어 Murphy와 Moriarty(1976)는 성공적인 적응의 두 가지 측면이 환경에서의 기회, 도전, 좌절,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과 내적인 통합의 유지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공적인 적응에 기여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유능성과 자아탄력성을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되는(Beck, Kovacs, & Weissman, 1979; Fremouw, De Perczel, & Ellis, 1990; Simons & Murphy, 1985) 자살생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동일한 수준의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살생각을 갖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심리적 기제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의 성격 및 행동특성,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스트

레스와 자살생각간의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청소년 자살과 자살생각

세계보건기구(WHO, 1968)에서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하였다. Sandin 외(1998)는 자살을 자살생각, 자살시도, 완성된 자살 혹은 성공한 자살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White(1989)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을 자살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생각이라고 정의하였고, Goldney 외(1989)는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매우 잘못된 자기 파괴적인 망상을 갖고 죽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행동, 사고, 정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광배, 신민섭, 1991; Brent, Kalas, & Edelbrock, 1986; Pfeffer, Conte, & Plutchik, 1993; Smith & Crawford, 1986). Simons와 Murphy(1985)는 아주 가벼운 자살생각이라도 후에 자살기도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자살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자살시도 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는 될 수 있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Fremouw, De Perczel, & Ellis, 1990).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에서 더 흔히 나타나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한다는 연구(Sudak, Ford, & Rushford, 1984)가 있는 반면, 자살생각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Harlow, Newcomb, & Bentler, 1986)도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자살시도를 보이나, 자살 성공률은 남성이 여성의 3~4배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원호택, 이민규, 1987).

청소년 자살은 특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으로 인하여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인의 경우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원인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정신질환의 표현이라고만 볼 수 없다(Sheidman, 1987). 평소

에 잘 기능하던 정상 청소년들도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적인 욕구 혹은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홍나미, 정영순, 1999; Glaser, 1981).

둘째, 대부분이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시도된다는 점이다(Brent, 1987). 이것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할 과업은 많은데 비하여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충동성이 심화되는 시기로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신민섭 외, 1990).

셋째, 청소년들은 실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살하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 10%만이 1년 안에 자살을 재시도 하였고, 90%는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Hawton, Osborn, O'Grady, & Cole, 1982). 자살시도를 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가 있는 지 1개월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Hawton, 1986). 이는 청소년이 최종 목표로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준다.

2.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에서 밝혀진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우울 및 절망감(홍영수, 전선영, 2005; Baumeister, 1990; Morano, Cisler, & Lemerond, 1993), 생활스트레스(심미영, 김교현, 2005;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s, 1992; Hendin, 1987), 부정적인 가족경험(박광배, 신민섭, 1991; 전영주, 이숙현, 2000; Grob, Klein, & Eisen, 1983), 알코올 등 물질남용(Rich, Fowler, & Fogarty, 1990; Shaffer, 1988), 성격장애 혹은 행동장애 (Baumeister, 1990), 낮은 사회적 지지 및 친구관계(D'Attilio, Campbell, Lubold, & Richard, 1992; Morano et al., 1993; Rubenstein, Heeren, Housman, & Stechler, 1989), 미디어 등을 통한 자살사건의 접촉(Shaffer, 1988), 성정체성 혼란(Bradford, Ryan, & Rothbum, 1994; Nelson, 1994; Schneider, Taylor, Hammen, Kemeny, & Dudley, 1991) 등이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다룬 생활스트레스(life stress)는 발생빈도와 발생사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중대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되어져 왔다(Lazarus & Folkman, 1984). 연구들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자신의 갑작스런 질병 등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e Wilde et al., 1992; Dixon, Heppner, & Anderson, 1991; Kelly, Lynch, Donovan, & Clark, 2001; Mazza & Reynolds, 1998; Sandin et al., 1998). 그러나 중대한 생활사건 이외에도 외로움, 소중한 물건의 분실, 가족원간의 다툼, 떨어진 성적, 숙제, 친구와의 다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일상적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도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다는 연구도 있다(예: Wilson et al., 1995).

최근 연구에서도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의 측정치보다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측정치가 자살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숙빈, 정철순, 2002; Chang, 2002; Edward, 2002). 예를 들어, Dixon 외(1992)는 중대한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하고도 일상적 생활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etha와 McWhirter(1997)의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자살의도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수(2004)의 연구에서도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며, 자살생각에 대한 6%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Baumeister(1990)에 따르면, 자살은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 상황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가 합해져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경애 외(1993)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야단과 질책,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주로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도 중요한 인물의 상실이나 그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질병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 이성, 선생님과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역기능적이며 가족과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우선유, 1999), 이런 가족내 갈등이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llen, 1987; Sands & Dixon, 1986). 특히 가족 문제 중에서 어머니와 가족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자살

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Taylor & Stansfield, 1984). 청소년 자살 시도자는 가정 내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문제해결 기술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chael, Richard, & Elizabeth, 1995; Taylor & Stansfield, 1984).

이밖에도 부적절한 친구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우선유, 1999). 학교 내에서 또래 집단이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지니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비행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전영주, 이숙현, 2000). 결국 심한 스트레스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한다(한국청소년 개발원, 1996).

3.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Gjerde, 1990). 그러므로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긴장 안내 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을 의미하며(Block & Kremen, 1996), 외적·내적 긴장원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Klohn, 1996).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이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 관여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는 자신감 있는 낙천주의,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성, 대인관계에서의 통찰과 따스함, 능숙한 자기 표현력 등을 들고 있다(Klohn, 1996). 넓은 의미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융통성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 일반적 능력이며,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적응을 위한 개인이 지닌 자원이다(Block & Block, 1980).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이 외적 요인과 행동간의 관계에서 중재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이 높

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경우도 적고,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한 예기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으며 (Tellegen, 1985),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낮은 상황에서도 잘 적응 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은 융통성이 없어 상황의 역동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며,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외상을 경험한 후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며(Block & Gjerde, 1990), 심한 경우 지속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Garmezy, 1991). 김교현 외(200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를 보고하였으며, 김윤희와 황순택(2003)은 부모 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경문(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적인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대처 및 사회적 지지를 추구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비탄력적인 집단은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성격자원으로 보인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도 그 개인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학교 생활, 교우관계, 자기문제, 환경문제, 가족관계) 중 어떤 스트레스 원이 자살생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전체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완충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주로 어떤 스트레스 원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충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은 남학생 88%, 여학생 98%가 한번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중학생은 85%가 한번이상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애 외, 1993).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경남에 소재하는 7개의 중학교 2-3학년 남녀 학생 451명과 6개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362명 등 총 817명(남학생 379명, 여학생 438명)이었다. 본 연구는 학급단위로 집단적으로 설문지 조사형태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문에 임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생활스트레스척도, 자살생각척도, 자아탄력성척도 등 모두 3종류이었다. 척도의 응답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설문지의 순서를 상쇄(counter balancing)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스트레스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일상 스트레스를 5요인으로 구분한 최혜림(1986)의 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학교생활스트레스, 교우관계스트레스, 자기문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 별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다', 교우관계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진실하게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다', 자기문제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의 희망과 부모님의 기대가 달라 갈등이 생긴다. 환경문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등하교시 복잡한 교통문제로 짜증이 난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나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현재 혹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연 외(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76~.82이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전체문항의 경우 .91이었으며,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72~.81이었다.

자살생각척도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한 도구는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의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 것이다. 이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것이었으나,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예로 들면 '나는 사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0), 별로 그렇지 않다(1), 정말 그렇다(2)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연 외(2005)의 연구에서 .95,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미영과 김교현(2005)의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자아탄력성척도 본 연구에서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 외(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개 문항(예: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대부분 그렇지 않다(1점) ~ '대부분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옥선 외(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III. 결 과

1. 기본 자료분석

남녀학생들의 전체생활스트레스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M=2.57$)에 비해 고등학생($M=2.69$)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9.91, p<.01$. 둘째, 남학생($M=2.57$)에 비해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6.69, p<.01$. 학년별 자살생각의 평균차이(중학생 $M=0.52$, 고등학생 $M=0.52$)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1, ns$, 남학생($M=0.49$)에 비해 여학생($M=0.55$)이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8.44, p<.01$. 한편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813)=3.05, ns$. 한편 자아탄력성의 경우, 성별에 따른 주 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13)=5.92, p<.01$. 즉 남학생($M=2.78$)에 비해 여학생($M=2.86$)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학년과 관련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1, ns$.

2.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스트레스 5가지 하위요인(학교생활스트레스, 교우관계스트레스, 자기문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각각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화 회귀분석(standardized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예 언 변 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자기문제 스트레스	.10	.21	4.93**
가족관계 스트레스	.08	.19	4.98**
학교생활 스트레스	.06	.12	3.22**
환경문제 스트레스	.04	.08	2.06*
환경문제 스트레스	.03	.07	1.86

주. 종속변인 : 자살생각 * $p<.05$, ** $p<.01$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에 의한 자살생각 크기의 전체 설명변량(R^2)은 약 27.3%이었다. 표 1에서 보듯, 하위요인들 중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학교생활, 자기문제, 환경문제, 가족관계 등 이었으며, 교우관계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량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순서이었다.

3. 전체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절변인(moderator)이란 질적인 또는 양적인 변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관계에 방향의 유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Baron & Kenny, 1986).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조절변인의 효과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가능하다. 먼저 1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후, 2단계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 항의 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자살생각과 독립변인인 생활스트레스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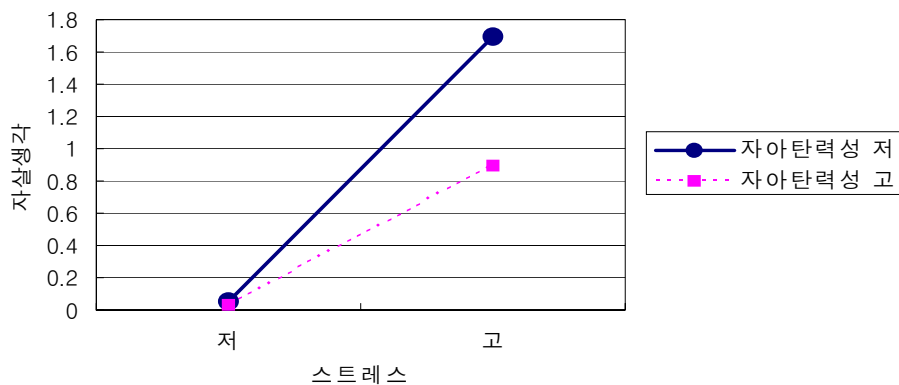
<표 2>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

단계	투입변수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β)	t
1	스트레스(전체)	0.28	.46	14.54**
	자아탄력성	-0.10	-.14	-4.39**
2	상호작용	-0.08	-.41	-2.59**

주. 종속변인 : 자살생각 ** $p < .01$

<표 2>에서 보여주듯,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beta = .46, p < .01$),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beta = -.14, p < .01$),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에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1, p < .01$).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 Cohen과 Cohen(1983)이 추천한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비표준화 회귀계수로 구성된 회귀방정식 $Y(\text{자살생각}) = 0.51 \cdot X_1(\text{생활스트레스}) + 0.13 \cdot X_2(\text{자아탄력성}) - 0.08 \cdot X_1X_2 - 0.58$ 에서 두 예언변인인 생활스트레스의 최소값(1)과 최대값(5), 자아탄력성의 최소값(1)과 최대값(4)을 위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자살생각의 예측 값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그림 1]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스트레스의 고저에 따라 자살생각을 하는 정도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의 고저에 따른 자살생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위의 분석에서 보듯, 자아탄력성은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조절해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이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학교생활스트레스, 교우관계스트레스, 자기문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들 중 어떤 스트레스 원과 자살생각 간에 조절역할을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의 요약은 아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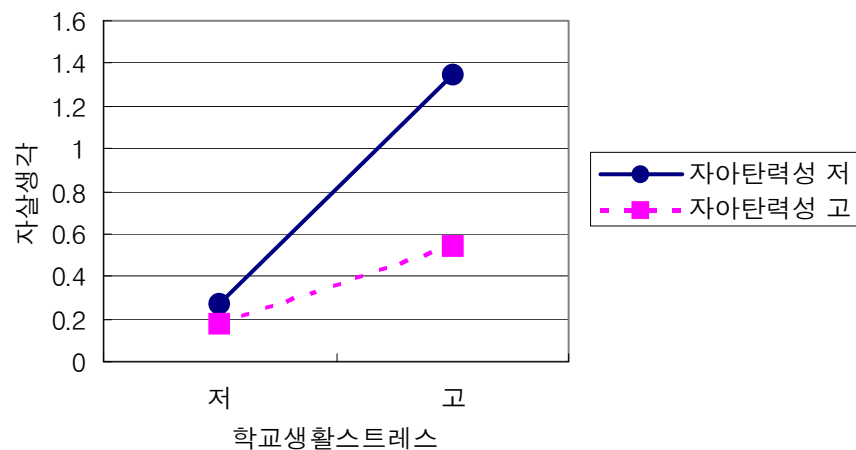
<표 3>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2

단계	투입변수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β)	t
1	학교생활스트레스	0.15	.33	10.42**
	자아탄력성	-0.17	-.25	-7.79**
2	상호작용	-0.06	-.45	-2.26*
1	교우관계스트레스	0.11	.02	6.59**
	자아탄력성	-0.15	-.21	-6.10**
2	상호작용	-0.04	-.24	-1.50
1	자기문제스트레스	0.18	.40	11.97**
	자아탄력성	-.011	-.16	-4.87**
2	상호작용	-0.07	-.44	-2.90**
1	환경문제스트레스	0.15	.32	9.87**
	자아탄력성	-0.16	-.24	-7.46**
2	상호작용	-0.10	-.68	-3.78**
1	가족관계스트레스	0.15	.36	11.38**
	자아탄력성	-0.15	-.22	-6.81**
2	상호작용	-0.05	-.33	-1.82

주. 종속변인 : 자살생각 * $p < .05$, ** $p < .01$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세 가지 스트레스 원(학교생활, 자기문제, 환경문제)과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나, 나머지 두 가지 스트레스 원(교우관계, 가족관계)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스트레스($\beta=.33, p<.001$)와 자아탄력성($\beta=-.17, p<.01$)은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beta=-.45,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는 회귀식 $Y_{(자살생각)} = 0.33 \cdot X_1(\text{학교생활스트레스}) + 0.03 \cdot X_2(\text{자아탄력성}) - 0.06 \cdot X_1 \cdot X_2 - 0.03$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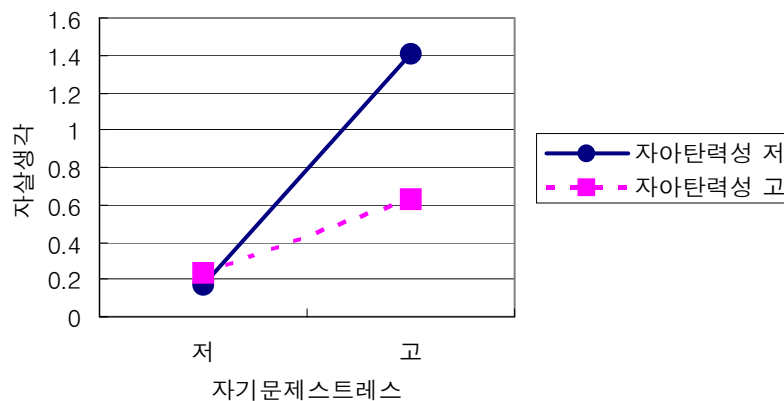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그림 2]에서 보듯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학교생활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생각의 크기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학교생활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생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기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문제스트레스($\beta=.40, p<.01$)와 자아탄력성($\beta=-.16, p<.01$)은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문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문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beta = -.44, p < .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효과를 위한 회귀방정식 $Y_{\text{(자살생각)}} = 0.38 * X_1(\text{자기문제스트레스}) + 0.09 * X_2(\text{자아탄력성}) - 0.07 * X_1 * X_2 - 0.23$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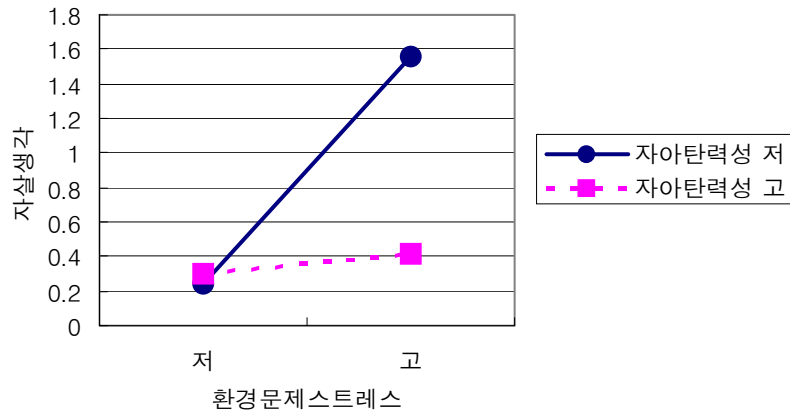


[그림 3] 자기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그림 3]에서 보듯,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자기문제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생각의 크기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기문제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생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자기문제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환경문제스트레스($\beta = .32, p < .001$)와 자아탄력성($\beta = -.24, p < .001$)이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문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beta = -.68,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방정식 $Y_{\text{(자살생각)}} = 0.43 * X_1(\text{환경문제스트레스}) + 0.12 * X_2(\text{자아탄력성}) -$

0.10*X₁*X₂ - 0.21을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환경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위의 [그림 4]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환경문제스트레스의 따른 자살생각의 크기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환경문제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생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환경문제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서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상호작용효과 $\beta = -.24$, $\beta = -.33$, ns . 둘 모두에서 스트레스 원과 자아탄력성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은 개인적 스트레스(성적과 같은 학교생활, 개인문제, 교통 불편과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자살생각은 완충시켜 주는 반면, 대인적 스트레스(친구와의 대인관계 문제,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로 인한 자살생각은 완충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의 성격 및 행동특성,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조절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스트레스의 5가지 하위요인들 중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의 순위로는 자기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순이었으나, 교우관계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문제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특성인 정체감 위기와 그에 따른 갈등과 좌절, 혼란의 경험 및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정체감 확립과 건강한 자아상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이 연계한 입체적인 방식의 접근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많은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 경제적, 심리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가정의 적절한 지지와 보호가 요구된다. 자기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다음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의 과열 입시 경쟁으로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생활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자살생각을 하는 정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비하여,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생활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변화의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교현 외(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보고한 것과 유사하며, 자아탄력성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

내는 적응적인 성격개념이며, 역경을 이겨내는 성격자원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예: Compas, 1987; Cowen, Work, Wyman, Parker, Wannon, & Gribble, 1992; Garnezy, 1991)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세 가지 스트레스 원(학교생활스트레스, 자기문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기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환경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들 간에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두 가지 스트레스 원(교우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교우관계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청소년 개인이 내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스트레스 원(학교생활스트레스, 자기문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에 대하여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청소년 개인이 혼자서 심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즉, 대인과 관련된 스트레스요인인 교우관계스트레스와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가족관계스트레스에서 자아탄력성은 자살생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내부에서 적응적인 성격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을 때, 본인의 적응 유연성에 따라 스트레스나 역경상황에 대해 심리적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임을 주장한 선행연구 결과들(예: 김정수, 노성덕, 2003)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자살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자아탄력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데 연구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 자기문제스트레스나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을 평소에 잘 관찰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학교-상담실-지역사회단체의 유기적인 시스템인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종류의 청소년 상담과 교육에서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가족이나 친구 등)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에는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적 특성의 증진보다는 사회적 지지(De Wilde et al., 1992)이나 의사소통 기술(이경진, 조성호, 2004)의 증진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원에 따라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살생각을 지닌 청소년의 상담에서 그들의 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국내 여러 연구들(예: 김옥선 외, 2005; 유성경 외, 2004; 장진아, 신희천, 2006)에서 사용되고 있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척도를 사용하였다. 현재 자아탄력성척도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척도들마다 그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비율이 달라 어떤 척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의 개념이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개념 통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그 개념과 관련한 척도들의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주로 자기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경기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지연 외(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자기문제,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스트레스(예: 교통의 불편함 등)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이지연 등의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두 연구의 표본지역이 지닌 생활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의 구분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본 연구는 5가지 스트레스원을 가정한 기존 연구 중 하나를 따랐다. 스트레스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는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추후연구에서는 사전에 스트레스의 원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특히 자기문제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우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형성과 증진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특히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교육연구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보건위원회(2006).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실태와 의식조사 보고서. 미출간.
- 김교현·권선중·심미경(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1호, pp. 113-126.
- 김옥선·오윤자·최명구(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3호, pp. 761-777.
- 김윤희·황순택(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제2호, pp. 343-362.
- 김정수·노성덕(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자아탄력성, 학교만족, 가족화목, 사회적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대학생생활연구(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1, pp. 154-172.
- 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종용(1993). 청소년 자살행동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광배·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0권 제1호, pp. 298-314.
-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pp. 20-32.
- 세계보건기구(WHO). <http://www.who.int>
- 심미영·김교현(2005). 한국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3호, pp. 313-325.
- 우선유(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6권 제1호, pp. 22-23.
- 유성경·홍세희·최보윤(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 393-408.

- 이경진·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4호, pp. 667-685.
-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4호, pp. 375-394.
- 임숙빈·정철순(2002).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원과 대응행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2호, pp. 254-264.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143-161.
- 장진아·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3호, pp. 569-592.
- 전영주·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pp. 221-246.
- 최혜림(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청소년문제론. 서울: 서원.
- 홍나미·정영순(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제37권 제1호, pp. 449-473.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 153-181.
- 홍영수·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8-33.
- Aiken, L. S., and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len, B. P.(1987). Youth suicide. *Adolescence*, 22, pp. 271-289.
- Baron, R. M., and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 1173-1182.
- Baumeister, R. F.(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pp. 90-113.

- Beck, A. T., Kovacs, M., and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pp. 343-352.
- Billings, A. G., and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pp. 139-157.
- Block, J. H., and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lock, J., and Gjerde, P. F. (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In J. Rof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euchterlein, and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334-36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J., and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349-361.
- Bradford, J., Ryan, C., and Rothbum, E. (1994).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 for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pp. 238-242.
- Brent, D. A. (1987). Correlates of medical lethality of suicide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6, pp. 87-89.
- Brent, D. A., Kalas, R., and Edelbrock, C. (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pp. 666-673.
-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2, pp. 1279-1291.
- Cohen, J., and Cohen, P.(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NJ: Lawrence Erlbaum.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pp. 393-403.
- Cowen, E. L., Work, W. C., Wyman, P. A., Parker, G. R., Wannon, M., and Gribble, P. A.(1992). Test comparison among stress-affected, stress-resilient and nonclassified 4th-6th grade urban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pp. 200-214.
- D'Attilio, J. P., Campbell, B. M., Lubold, P., and Richard, J. A.(1992). Social support and suicide potential: Preliminary findings for adolescent populations. *Psychological Reports*, 70, pp. 76-78.
- De Wilde, E. J., Kienhorst, I. M., Diekstra, R. W., and Wolters, W. G.(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life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pp. 45-51.
- Dixon, W., Heppner, P. P., and Anderson, W.(1991). Problem 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pp. 51-56.
- Dixon, W., Rumford, K., Heppner, P., and Lips, B.(1992). Use of different sources of stress to predict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pp. 342-349.
- Edward, C. C.(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pp. 1279-1291.
- Fremouw, W. J., De Perczel, M., and Ellis, T. E.(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NY: Pergamon Press.
- Garnezy, N.(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pp. 462-466.

- Glaser, K.(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pp. 368-382.
- Goldney, R. D., Winefield, A. H., and Tiggemann, M.(1989). Suicidal ideation in a young adult popul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79, pp. 481-489.
- Grob, M., Klein, A., and Eisen, S.(1983). The role of the high school professional in identifying and managing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pp. 163-173.
- Harlow, L. L., Newcomb, M. D., and Bentler, P. M.(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pp. 5-21.
- Hawton, K.(1986).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Newbury Park, CA: Sage.
- Hawton, K., Osborn, M., O'Grady, J., and Cole, D.(1982). Classification of adolescents who take overdos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0, pp. 124-131.
- Hendin, H.(1987). Youth suicide A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7, pp. 151-165.
- Kelly, T. M., Lynch, K. G., Donovan, J. E., and Clark, D. B.(2001). Alcohol use disorders and risk factor interact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1, pp. 181-193.
- Kessler, R. C., Price, R. H., and Wortman, C. B.(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pp. 531-572.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1067-1079.
- Kobasa, S. C., Maddi, S. R., and Kahn, S.(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pp. 168-172.
- Lazarus, R. S., and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Mazza, J. J., and Reynolds, W. M.(199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nd their

-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8, pp. 358-374.
- Metha, A., and McWhirter, E. H.(1997).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0, pp. 284-304.
- Michael, K., Richard, H., and Elizabeth, D.(1995). Brief home-based intervention with young suicide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8, pp. 557-568.
- Morano, D., Cisler, R. A., and Lemerond, J.(1993).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behavior: Loss, insufficient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Adolescence*, 28, pp. 851-865.
- Murphy, L. B., and Moriarty, A. E.(1976).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From infancy to adolesc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Nelson, J. A.(1994). Comment on special issue on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48, pp. 523-524.
- Pfeffer, C. R., Conte, H. R., and Plutchik, R.(1993). Suicidal behavior in latency-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pp. 679-692.
- Rich, C. L., Fowler, R. C., and Fogarty, R. C.(1990). San Diego suicide study: The adolescents. *Adolescence*, 25, pp. 854-865.
- Rubenstein, J. L., Heeren, T., Housman, D., and Stechler, G.(1989).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pp. 59-71.
- Sandin, B., Chorot, P., Santed, M. A., Valiente, R. M., and Joiner, T. E.(1998). Negative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stress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1, pp. 415-426.
- Sands, R. G., and Dixon, S. L.(1986). Adolescent crisis and suicidal behavio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 pp. 109-122.
- Schneider, S. G., Taylor, S. E., Hammen, C., Kemeny, M. E., and Dudley, J.(1991).

-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ntent in gay and bisexual suicide ideations: Differing models for men with and without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1, pp. 776-788.
- Shaffer, D.(1988). The epidemiology of teen suicide: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9, pp. 36-41.
- Sheidman, T.(1987). Adolescents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pp. 545-565.
- Simons, R. L., and Murphy, P. I.(1985). Sex difference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pp. 423-434.
- Smith, K., and Crawford, S.(1986). Suicidal behavior among “normal”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16, pp. 313-325.
- Sudak, H. S., Ford, A. B., and Rushford, N. B.(1984). Adolescent suicide: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 pp. 350-363.
- Taylor, E. A., and Stansfield, S. A.(1984). Children who poison themsel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5, pp. 127-135.
- Tellegen, A.(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and J. D. Maser(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pp. 681-706). Hilsdale, NJ: Erlbaum.
- White, J. L.(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Y: Pergamon.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atullah, M., and Elliot, C. A.(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5, pp. 241-25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Ko, Jae-Hong* · Yun, Kyung-Ran*

Given the 5 stressors of adolescents, this research not only examines which stressor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ir suicidal ideation, but also focuses on whether or not ego-resiliency works as a buffer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n their part.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into ego-resiliency which arbitrates between those stressors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responses from a total of 81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the subfactors of total daily stress, stress pertinent to one's own problems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followed by stressors coupled with family relations, school lif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eer relations in order. Second, ego-resiliency proved to act as a buffer against suicidal ideation induced by stress. More specifically, ego-resiliency turned out to be a buffer between personal stress (school life, person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suicidal ideation. Meanwhile, the construct at hand did not function as a buffer between interpersonal stress (problems associated with peer relations and problems with family members) and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stress, suicidal ideation, ego-resiliency, moderator

투고일 : 3월 30일, 심사일 : 5월 2일, 심사완료일 : 5월 18일

* Kyungnam University